

전일동향

전일대비 3.40원 상승한 1,447.7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40원 상승한 1,447.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20원 상승한 1,445.50원에 개장했다. 달러 약세에도 최근 급락분을 되돌리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BOE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유로, 파운드 급락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수출네고,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에 상단이 제한되며 1,447.7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9.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5.50	1451.90	1444.10	1447.70	1447.10
	엔화	945.84	957.20	944.62	955.35	-
	유로화	1502.78	1506.57	1497.02	1503.84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4	-5.47	-12.13	-27.35
	결제환율(수입)	-0.85	-4.37	-10.37	-24.0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관망세에...1,44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7.70) 대비 1.50원 하락한 1,444.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美 비농업 고용지표 경계감 속 강달러 부담 완화에 하락 시도가 예상된다. 달러화는 파운드 약세, 엔화 강세 등을 소화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파운드화는 BOE 기준금리 25bp 인하에 약세를 보이며 강달러를 지지했다. 하지만, 비농업 고용 발표를 앞두고 미 주간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각각 21.9만명, 188.6만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자 달러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했다. 아울러, 엔화는 BOJ 위원의 매파발언에 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확대되며 강세를 시현하여 달러 약세에 일조했다. 달러화는 0.05% 상승한 107.67에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저녁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를 관망하는 가운데 엔화 강세 등에 연동되어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2.25 ~ 1451.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515.9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0원 ↓
	■ 美 다우지수 : 44747.63, -125.65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9.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215 억원